

아동의 사회성 측정을 통한 학급의 역동 관찰

안 이 환

(부산교육대학교 교수)

I. 연구의 목적

발달과업을 완성해야 할 결정적인 초등학교 시기에 학급원들로부터 장기간 배척되어 학급생활을 하고 있다면 교육적인 지도가 필요하다. 이상적인 학급의 구조는 어떤 한 학생이 장기간 배척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인기아동과 배척아동의 경험을 동시에 공유해보는 그런 구조이다. 따라서 배척된 아동도 일정한 시점에는 인기아동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많은 연구자들에 의하면 이러한 경향성은 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다(Gronlund, 1959).

본 연구에서는 동료지명법(peer nomination)을 통하여 아동의 학급내 사회적지위(social status)를 바탕으로 학급집단의 역동을 파악하기로 하였다. 학급에서 장기간 배척되고 무시된(neglected) 아동을 주 대상으로 또래상대자들이 활동을 수행한 결과 학급의 각 아동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사회성측정

아동들간의 관계구조를 파악하려는 한 가지 방법으로 Forsyth와 Katz(1946)가 만들었던 사회성측정매트릭스(sociometric matrix)를 통한 집단구조의 이해 방법이 많이 사용되었다(허창범, 1997). 사회성측정매트릭스가 발표된 이후 Moreno는 집단의 역동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소시오그램(sociogram)과 사회성측정매트릭스를 동시에 이용하는 것이 집단의 역동을 관찰하는데 더 유용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즉 사회성측정매트릭스만으로는 아동집단의 관계구조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황정규, 1984).

미국에서 사회성 측정에 의한 학급집단의 아동에 대한 관찰 및 평가는 거의 70년 동안 계속되었다(Bukowski & Cillessen, 1998). Coie와 Dodge(1982)는 사회성측정을 통한 점수를 이용하여 아동을 5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5가지 유형의 아동 가운데 배척아동은 남아아동에게, 소외아동은 여자아동에게 많이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많은 학자들은 아동기 시절에 배척아동으로 판정된 아동은 성인이 되어서도 이러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아동의 형태를 분류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소개되고 있는 사회성 측정법은 Linn과 Gronlund(1995)가 제시한 세 가지 준거에 의한 긍정 선택 5명의 설문지 사용이 많은 것 같다. 또한 Hopkins, Stanley와 Hopkins(1990)은 부정 선택 문항이 없는 '함께 놀고 싶은 사람 3명'을 쓰게 한 다음 사회성측정 매트릭스를 작성하였다(강승호 외, 1996). 실제로 동료지명법을 통한 아동의 사회성을 측정하기 위한 준거 문항의 문제, 부정 문항과 긍정 문항의 동시 사용 문제, 선택 수와 배척 수의 제한과 무제한 문제 등등 연구의 방향은 다양하였으며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한 복잡한 논란이 있었다. Gronlund(1959)는 심리검사의 개념에서 말하는 신뢰도와 타당도라는 개념과는 정확히 일치하지 않지만 사회성측정을 위한 질문지들이 일정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지닌다고 하였다. Linn과 Gronlund(1995)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경우에는 선택의 수가 적어야 하며 고학년일 경우 한 질문당 5명까지를 선택하게 하는 것이 좋으며 그 이상의 숫자를 넘기게 되면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이것은 서양사회의 아동에 대한 연구결과로 우리나라 아동의 경우 학급당 인원수가 많고 사회문화적 배경이 다르므로 우리나라 아동의 경우 한 학급당 선호하는 친구의 수와 배척하는 친구의 수에 대한 개략적인 연구가 먼저 선행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자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6학년 아동의 경우 일반적으로 6-7명의 친구를 거명하였으며, 대략 3-4명을 싫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각 개별 아동마다 선택 수와 배척 수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안이환, 2006c).

사회성측정과 관련된 문제를 검토해보면, 첫째 사회성측정은 무제한 선택과 배척 둘 다 가능하다. 질문지에서 선택수와 배척수를 제한할 경우 설문내용에 대한 자료처리는 한결 쉬울 것이지만 집단구성원 각 개인들의 자연스러운 의사구조를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둘째, 질문지에서 제 1순위로 선택한 사람과 제 2순위로 선택한 사람에 대한 선택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고 단순히 피선택 수로만 계산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즉 피선택수는 작지만 선택의 순위가 높으면 사회적지위가 높아질 수 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연구에서는 피선택수로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모순을 범하고 있다. 실제로 Moreno가 표적소시오그램(target sociogram)을 작성한 이후에 선호관계를 연결한 것은 제 1순위에 따라서 연결한 것으로 이것은 1순위에 대하여 가중치를 두고 있는 것이다.

질문지에서 '좋아하는 친구를 선택해서 순서대로 쓰라'고 할 때, 순서대로 쓰는 것은 서열척도(ordinal scale)로 이는 순위 즉, 상대성을 나타내는 척도로서 등가(equivalence)와 서열(rank)의 두 가지 정보를 갖는다. 그러나 서열척도는 동간성(equidistance)이 없다. 즉 첫 번째로 좋아하는

아동의 이름과 두 번째로 좋아하는 아동간의 간격이 세 번째로 좋아하는 아동과 네 번째로 좋아하는 아동간의 간격과 같다고 자신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심리검사나 설문지의 결과를 동간성이 있는 것처럼 가감승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것은 자료가 사실은 서열척도이지만 동간성 정보를 상당히 가지고 있다고 가정할 것이다. 사회과학의 연구에서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으로 간주된다(김영채, 1989).

조사분석(survey analysis)의 연구와 관련하여 가중치(weighting value)를 주는 방법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의 방향이 있다. 하나는 표집의 크기가 지나치게 작은 경우이고 또 다른 하나는 nonepsem design에 의한 실험설계에서 나타난 자료를 분석하는 경우이다(Kalton, 1983). 본 연구에서의 표집은 완전한 학급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표집의 대표성 문제는 없다. 또한 실험설계(experimental design)와는 무관하므로 본 연구는 가중을 어떻게 주느냐의 문제만 남아 있다. Edwards와 Newman(1982)은 서열에 대한 가중(weight from ranks)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자료(data)가 서열적인 구조를 지닐 때 가중을 두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자료는 서열적 구조를 지닌다. 따라서 그들의 방법을 통해 본 자료들의 가중치를 계산하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inn과 Gronlund(1995)는 가중치를 주는 방법이 탁월한 방법이 아니라고 하였다(강승호, 김명숙, 김정환 외, 1996).

셋째, 선택수와 배척수를 제한함으로써 집단지수 예를 들면, 집단응집성 지수나 집단확산성 지수와 같은 지수를 통하여 학급의 집단별 비교를 어렵게 한다. 학급의 집단별 비교는 복잡한 성질을 갖는데 각 반마다 특수한 성향이 사회성측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급의 집단별 비교는 개략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선택 수와 배척 수를 제한하지 않을 경우에 각 개별 아동의 선택 수와 배척 수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다양성은 각 개별 아동의 집단에 대한 개인적 태도(desire and need)라고 볼 수 있다. 한 개인의 태도를 전체 평균을 중심으로 $M \pm 1SD$ 이상과 이하로 구분하고 $+1SD$ 이상을 과잉선택자, $-1SD$ 이하를 과소선택자로 구분한 연구자도 있다(Jennings, 1950). 이 같은 연구는 사회성측정에서 나타난 결과를 해석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선택수와 배척수를 제한하면 어떤 한 아동 A가 다른 아동에 대하여 선택과 배척을 동시에 하는 양가감정을 품고 있는 경우를 잘 나타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집단내 한 아동에게 나타나는 양가감정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자료이다. 쉬운 예로 자원을 놓고 두 아동이 경쟁 상황에 직면하면 싫으면서도 충분히 좋을 수 있다.

다섯째, 사회적 지위를 바탕으로 표적소시오그램을 완성하면 대집단, 중집단, 소집단, 외톨이 아동과 같은 집단구조의 형태를 볼 수 있다. Northwgy와 Bronfenbrenner의 표적소시오그램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서너 개의 동심원을 만들고 동심원의 한 가운데에 사회적 지위가 가장 높은 아동을 배치하며 제일 마지막 원에 사회적 지위가 제일 낮은 아동을 둔다. 현장의 교사들이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하지만(Gronlund, 1959), 이 방법은 선택 수가 제한되어 있을 때에만 가능하며 선택 순위에 따른 가중이 없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선택 수

가 제한되지 않거나 선택에 따른 가중치가 주어지면 이 방법은 유용하지 않다. 따라서 어떤 경우 에라도 학급집단의 자연스러운 표적소시오그램을 그릴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

여섯째, 사회성 측정은 한 개인의 사회적 적응(social adjustment)을 측정하므로 심리검사를 통한 개인의 태도 측정인 개인적 적응(personal adjustment)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회성 측정을 연구한 학자들의 대체적인 결론이다(Gronlund, 1959).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아동의 사회성을 높이는 연구들은 아동의 실제적인 사회적 적응보다 사회적 적응을 높이려는 개인의 태도변화 내지 사회적 적응을 위한 자존감 수준의 변화에 대한 측정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학급내 배척과 무시된 아동들이 실제로 변화되려고 한다면 또래 상담자를 1대1로 이들에게 붙여서 오랫동안 함께 활동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 부분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로 한다.

2. 또래상담

또래 상담은 1960년대 미국에서 시작되어 현재까지 활발한 연구가 거듭되고 있으며 특히 학교와 관련된 장면에서 많이 연구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청소년들을 위하여 한국청소년상담원(1995)에서 또래상담에 대한 연구 및 또래상담자훈련 프로그램을 연속적인 시리즈로 발간하면서 단위학교에 무료로 공급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성장 및 예방모형과 확대상담 프로그램(outreach program) 등의 개념이 새롭게 상담학계에 도입되면서 중요한 성장의 한 도구로 활용되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학급의 담임 교사가 최소 시간을 이용하여 또래상담자들에게 기본교육만을 시킨 다음에 이들을 활용하여 학급 집단내 배척과 무시된 아동을 변화시키려고 하였으며 또래상담자들은 멘토의 기능을 겸하였다.

본 연구의 주된 목표는 또래상담자가 투입되면서 학급집단 속의 각 개인들의 사회적지위 변화와 관계구조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또래상담자가 멘토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했다고 가정한다면 학급집단은 어떠한 변화를 일으켰을 것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추론이 정확하다면 좀 더 구체적인 수준에서 이들의 친구관계 구조에서 특별한 변화가 일어났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이 설정되었다.

- I. 또래상담자 투입 이후의 개별 아동의 선택수는 증가하고 배척수는 감소될 것이다.
- II. 또래상담자 투입 이전의 배척 및 무시된 아동이 또래상담자가 투입된 이후에 보통정도의 아동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 III. 또래상담자로 투입된 아동들의 학급내 지위구조에는 별 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다.
- IV. 지연점사의 측정 결과는 처치 이전의 측정 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보일 것이다.

Ⅲ. 연구방법

학급집단내 각 개별 아동의 사회적지위 변화를 일으키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또래상담자를 훈련시켜 학급에서 멘토로 활용하였다. 교육현장의 제한된 시간적 측면을 고려하여 또래상담자 훈련 모형은 최소한의 시간을 통해 또래상담자를 교육하는 모형으로 설정하였다.

1. 연구 대상

울산 Y 초등학교 한 학급 6학년 남자 16명, 여자 14명으로 총 30명이다. 이 가운데 주의력 결핍아동이 1명 있다. 연구 대상 Y 초등학교 담임교사는 남자교사로 교직 경력 5년이다.

2. 측정 도구

본 연구의 측정 도구는 선택 문항 하나와 배척 문항 하나로 전체 2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사회성측정검사이다. 선택문항은 '좋아하는 사람'을 무제한으로 선택하되 순서대로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배척 문항은 '꺼려하는 사람'을 무제한으로 선택하되 순서대로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한 개인에게 동일한 선택과 배척을 허용하는 중복 선택을 허용하였다. 질문지는 연구자가 만들고 현장 교사들과의 협의를 거쳐 완성하였다.

가. 사회적지위 분류

Coie와 동료들(1982)은 아동을 분류하기 위하여 사회적지위 분류체계를 제시하였다. 그 이후 Asher와 Dodge(1986)는 Coie의 분류법과는 다른 또 다른 사회적지위 분류체계를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두 연구팀들이 제시한 분류체계는 공통점이 많다. 본 연구에서는 Coie와 동료들의 분류 체계에 따라 학급집단내 아동들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분류체계는 아래와 같다.

아동의 분류	표준 점수에 의한 분류
① 인기아동(popular)	$SPz > 1.0$ and $Lz > 0$ and $Dz < 0$
② 배척아동(rejected)	$SPz < -1.0$ and $Lz < 0$ and $Dz > 0$
③ 소외아동(neglected)	$SPz < -1.0$ and $-0.5 < Lz < 0.5$
④ 양면성아동(controversial)	$SPz > 1.0$ and $Lz > 0$ and $Dz > 0$
⑤ 보통아동(average)	$-0.5 < SPz < 0.5$
⑥ 분류되지 않는 아동(others)	①, ②, ③, ④, ⑤에 분류되지 않는 아동

주: SPz 는 사회적 선호도(social preference)의 표준점수(Z)를 말한다.

3. 실험의 측정 과정

사전검사 X (실험처치) 사후검사 지연검사

- * 사전검사 및 사후, 지연검사는 사회성측정 검사
- * 실험집단: Y초등학교 6학년 남녀 아동 30명
- * 실험처치: 또래상담자 훈련을 받은 아동이 학급에서 또래상담자 및 멘토역할을 수행

4. 실험의 측정 시점

- 가. 사전검사: 2006년 6월 5일.
- 나. 사후검사: 2006년 6월 29일.
- 다. 지연검사: 2006년 12월 16일.

5.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 사용된 프로그램은 Brackenbury(1995)와 이상희, 노성덕, 이지은(2004)이 제시한 또래상담자 훈련 프로그램을 학급의 담임교사가 부분적으로 재구성하였다.. 프로그램의 훈련 개요만을 제시하고 훈련 내용은 생략하기로 한다.

가. 훈련개요

- ▶ 기 간 : 2006년 6월 7일부터 총 7회기 주2회 실시
- ▶ 시 간 : 점심시간: (12시 50분 - 1시 30분)
- ▶ 장 소 : 본교 음악실 / 영어실
- ▶ 대 상 : 0반, 남녀 학생 5명
- ▶ 선정방법 : 훈련 아동은 학급담임의 추천에 의해 선정

IV. 연구 결과

본 연구의 결과를 가설의 순서대로 제시하였다. 먼저 가설 I의 결과를 <표 1>에 제시한다.

1. 또래상담자 투입 전·후에 따른 개별 아동의 선택수와 배척수 및 지위변화

<표 1> 또래상담자 투입 전·후에 따른 개별 아동의 개인선택과 개인배척 수 및 지위변화

성 별	또래 상담 자	번호	처치 前 개인 선택 수	처치 後 개인 선택 수	지연 선택 수	처치 前 개인 배척 수	처치 後 개인 배척 수	지연 배척 수	처 치 前 판 별	처 치 後 판 별	지연 판 별	처치 前 지위 등수	처치 後 지위 등수	지연 지위 등수
남 자 아 동		1	8	10	10	3	9	10	O	O	A	25	15	17
	0	2	10	9	10	1	1	1	P	C	P	2	8	1
		3	5	7	7	2	1	2	P	C	P	6	9	12
		4	8	10	10	5	10	4	P	P	P	12	7	6
	0	5	10	10	10	1	1	6	P	C	C	5	2	9
		6	4	7	10	2	2	1	P	P	P	1	1	2
		7	8	7	10	2	2	4	P	C	P	7	6	4
		8	5	10	10	3	3	2	P	C	P	10	3	7
		9	7	7	6	2	5	2	P	P	P	3	5	3
		10	3	3	6	1	5	3	C	R	O	26	26	19
		11	2	2	1	3	3	9	R	R	R	30	30	29
		12	2	4	3	1	2	1	R	R	R	27	27	28
		13	3	3	10	2	1	1	R	R	R	28	28	27
		14	5	5	6	1	1	1	C	R	O	29	29	26
		15	7	9	10	4	10	10	A	R	P	21	21	13
		16	6	10	6	0	1	0	N	O	O	16	16	23
여 자 아 동		31	7	9	9	5	4	5	A	R	P	22	22	11
		32	4	7	10	1	4	1	P	C	R	13	23	14
		33	1	3	4	2	2	2	P	O	P	18	18	10
		34	8	6	9	5	4	7	P	O	A	19	12	18
		35	7	6	8	3	2	3	P	O	R	14	19	25
		36	8	5	10	4	2	3	P	P	P	4	4	5
	0	37	6	7	6	2	1	2	O	C	P	20	10	8
		38	4	3	8	1	2	9	P	O	C	11	11	15
	0	39	5	5	10	7	6	7	P	R	O	8	25	22
		40	7	6	7	3	2	6	A	R	R	23	24	20
		41	5	10	7	8	4	4	P	R	O	17	20	10
	0	42	3	6	10	5	8	6	P	O	R	9	12	21
		43	5	5	7	1	3	3	P	O	R	15	12	24
		44	3	6	10	6	3	10	O	O	A	24	16	16
계		30명	166명	197명		86명	104명							

<표 1>에서 보듯이 프로그램의 처치 이전 남자아동의 경우에는 평균 5.8명의 동료를 선택하였으며 여자아동의 경우에는 평균 5.2명의 동료를 선택하였다. 처치 이전 남자아동은 평균 2.06명의 동료를 배척하였으며 여자 아동의 경우에는 평균 3.79명의 아동을 배척하였다. 프로그램의 처치 이후에 남자아동의 경우에는 평균 7.06을 선택하였으며 여자아동의 경우에는 평균 6.0명의 아동을 선택하였다. 처치 이후 남자아동은 평균 3.56명의 아동을 배척하였으며 여자아동의 경우에는 평균 3.36명의 아동을 배척하였다.

결과적으로 프로그램의 처치 이후에 남자아동 및 여자아동의 평균 선택수가 1명 늘어났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처치 이후로 여자아동의 배척은 거의 변화가 없었지만 남자아동의 경우에는 배척 수가 평균 1명 이상 늘어났다. 따라서 또래상담자 훈련은 남녀아동의 평균 선택수를 1명 증가시켰지만 남자아동의 경우에만 배척에서도 평균 1.5명 이상 증가하였다. 남녀 아동 모두 배척된 아동은 배척된 상태를 인기아동은 인기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2. 또래상담자 투입 이전에 배척된 아동의 투입 이후 변화

또래상담자 투입(처치) 전후 배척된 아동의 사회적지위에 따른 유형변화와 동시에 전체 아동의 변화 모습을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배척아동의 또래상담자 투입 전·후 사회적지위에 따른 유형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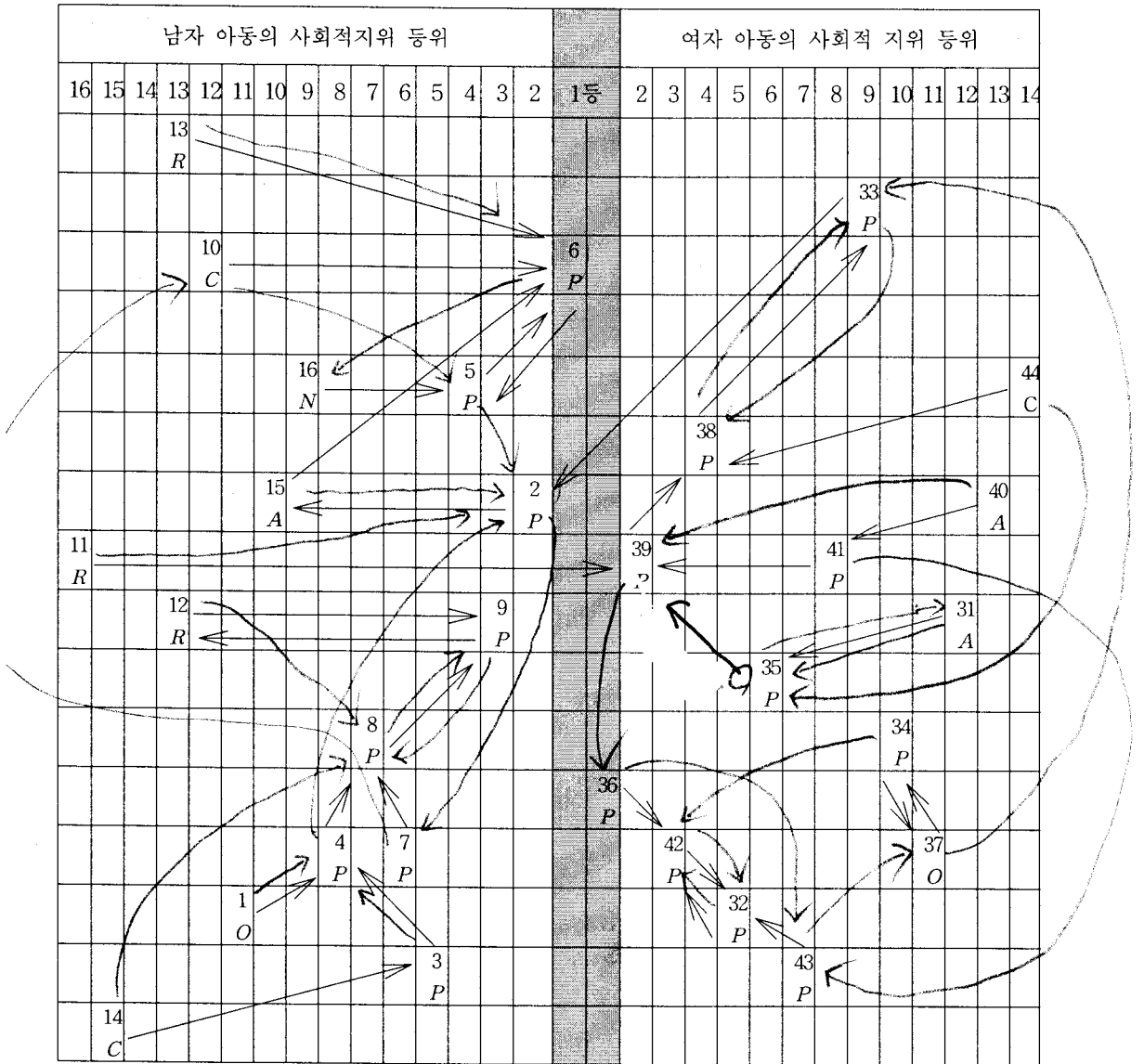
처치전-후 남·녀 아동의 유형별 변화								처치전-후 남·녀 아동의 동일 유형 유지 상태							
처치전-후	인원	남	여	처치전-후	인원	남	여	처치전	인원	남	여	처치후	인원	남	여
O→O	2	1	1	A→R	3	1	2	P	18	8	10	P	4	3	1
P→C	6	5	1	N→O	1	1	0	R	3	3	0	R	10	6	4
P→P	4	3	1	P→O	6	0	6	A	3	1	2	A	0	0	0
C→R	2	2	0	O→C	1	0	1	C	2	2	0	C	7	5	2
R→R	3	3	0	P→R	2	0	2	N	1	1	0	N	0	0	0
예) R은 배척된 아동을 나타냄								O	3	1	2	O	9	2	7

<표 2>에서 보듯이 사전에 배척된 3명의 아동은 처치 이후에도 학급집단에서 그대로 배척된 상태를 유지하였다. 따라서 또래상담자 훈련이 학급집단의 배척아동에게 현실적인 수준에서 변화를 유도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의 처치 이후에 인기아동이 14명 줄어들고, 배척아동이 7명 늘어났으며 또한 양면성 아동이 5명 늘고 어떤 분류체계에도 속하지 않는 아동이 6명 증가하였다. 따라서 배척아동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배척아동의 증가 및 양면성 아동의 증가 등으로 볼 때 실험집단은 급격하게 혼란스러움을 경험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학급내 구조적 변화

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자가 창안한 표적소시오그램(target sociogram)을 또래상
 담자 투입 이전과 이후로 각각 나누어 <표 3>과 <표 4>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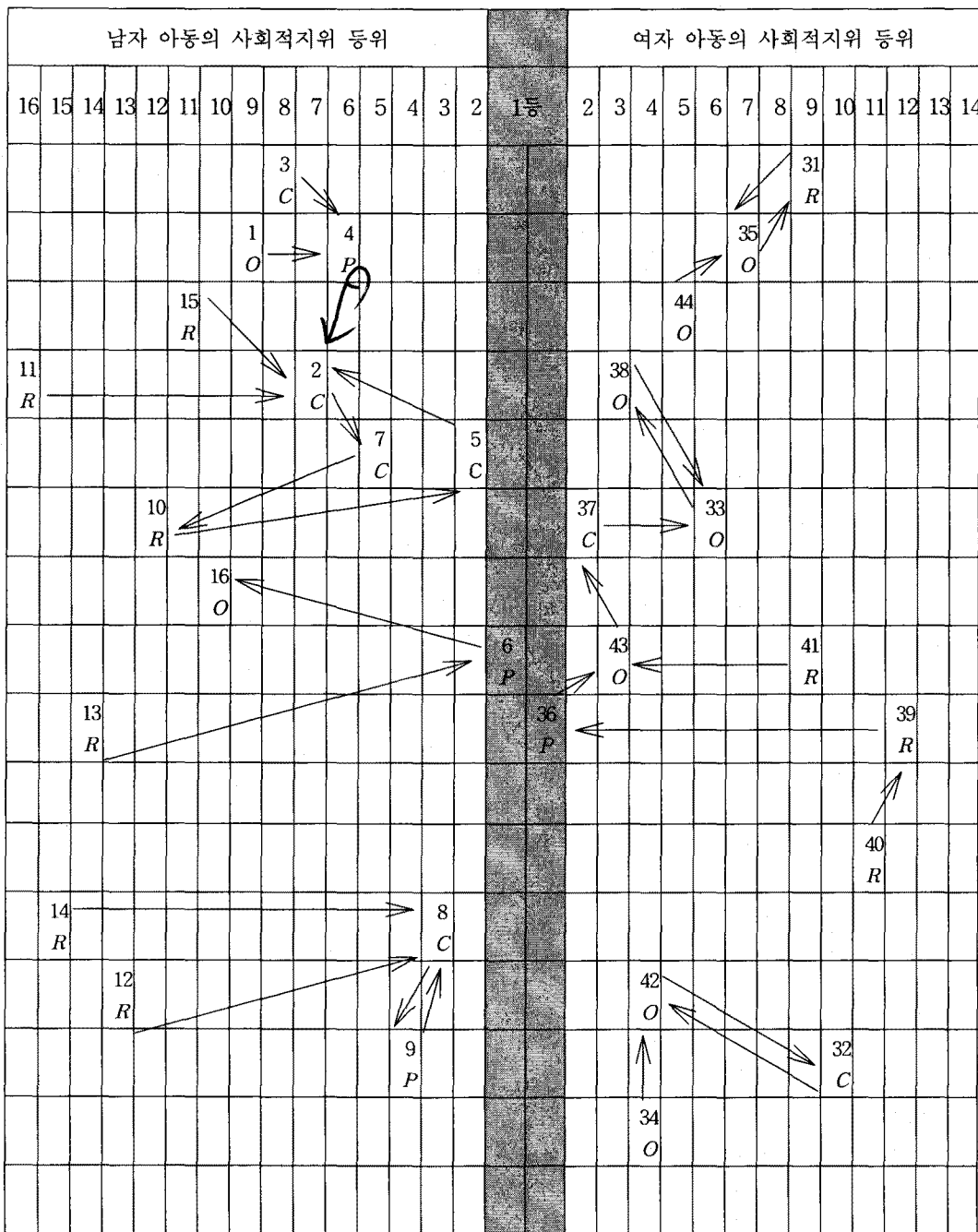
<표 3> 또래상담자 투입 이전의 남녀 아동의 사회적지위와 관계의 구조



주 : 번호는 개별 아동의 출석 번호임, 제 1순위 선호도를 바탕으로 서로간의 관계를 화살표로 연결함.

13R은 13번 아동이 배척(rejected)되었다는 의미.

<표 4> 또래상담자 투입 이후의 남녀 아동의 사회적지위와 관계의 구조



<표 3>과 <표 4>에서 보듯이 프로그램의 처치 이전과 처치 이후의 30명의 학급구성원들의 사회적지위 변화를 살펴보면 전체적 사회적지위 등위에서 대략적으로 1위에서 8위까지는 처치 이후에도 사회적 지위에서 큰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다. 또한 21위에서 30위까지도 큰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9위, 10위부터 20위의 지위까지는 조금씩 변화를 보였다.

이런 결과를 볼 때 또래상담자를 멘토로 활용한 학급집단의 변화는 아동의 사회적지위의 중위권에서 약간의 변화를 일으킬 뿐 상위 집단과 하위집단에는 변화를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하위권은 거의 등수의 변화를 보여 주지 않았다. 특히, 사전과 사후에 배척된 11, 12, 13번 아동은 심각하다.

3. 또래상담자로 활동한 아동의 학급집단내 지위구조 변화

또래상담자로 투입된 5명의 아동 번호는 2번(남), 5번(남), 32번(여), 37번(여), 39번(여)이다. 또래상담자 투입 이전의 39번 인기아동(P39)은 이후에 R39로, P32는 C32로, O37은 C37로, P2는 C2로, P5는 C5로 각각 변화였다. 5명의 아동은 모두 또래상담자로 활동한 이후에 다른 유형의 형태로 변화되었다. 그러나 <표 3>과 <표 4>에서 보듯이 또래상담자 투입 전·후의 남녀 아동의 사회적지위와 친구관계의 구조에서 또래상담자로 지정된 아동과 유사한 사회적지위 수준에 있었던 P6, P7, P36 아동 3명은 처치 이후에도 인기아동의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또래상담자로 지정된 5명의 아동은 학급에서 배척되거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아동들과 상호작용을 시도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다른 아동들과의 상호작용이 적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학급집단의 관계구조와 관련하여 실험처치 이전에 두 사람간에 서로 선택(상호선택)을 했던 아동들은 처치 이후에도 이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거나 같은 무리구조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호선택은 잘 변화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실험처치 이후에도 여자아동들의 무리 구조는 잘 깨어지지 않는 것 처럼 보였으나 상대적으로 남자 아동들의 무리 구조 변화는 더욱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급집단 속에서 배척된 남자 아동들은 사회적지위가 매우 높은 아동을 제1선택으로 지목한 반면에 사회적지위가 매우 높은 남자 아동은 자기보다 조금 낮은 사회적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아동들을 제1선택으로 지목하였다. 그러나 여자 아동들의 경우에는 사회적지위가 비슷한 아동들끼리 서로를 지목하였다. 이러한 아동들간의 친구관계 구조에 대한 한 가지 실례를 통하여 상담지도 및 생활지도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부록 참고>.

4. 처치 이전과 지연검사의 검사 결과 유사성

실험에 들어가기 이전의 결과와 지연검사의 결과가 유사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지연검사에

<표 3>의 남자아동의 경우 인기아동은 2, 3, 4, 5, 6, 7, 8번으로 7명이었다. 지연검사에서는 5번 아동을 제외하고 모두 인기아동으로 나타났다. 또한 11, 12, 13번 아동 3명이 배척된 아동으로 나타났는데 지연검사에서도 모두 3명이 배척아동으로 나타났다.

여자아동의 경우 32, 33, 34, 35, 36, 38, 41, 42, 43번 아동 9명이 인기아동이었지만 지연검사에서는 33, 36번 아동을 제외하고 유형이 변화되었다. 처치 이전에 배척아동이 한 명도 없었으나 지연검사에서는 32, 35, 40, 42, 43번 아동 5명이 배척아동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남자아동의 경우 인기아동과 배척아동간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여자아동의 경우 인기아동과 배척아동간에 변화가 심하였다.

V. 논의 및 제언

연구가설 I의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또래상담자가 투입된 이후로 학급아동의 질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남녀 아동의 평균 개별선택 수가 1명씩 늘어나 상호작용이 촉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남자아동의 배척수도 동시에 증가하여 남녀아동간에 훈련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즉 여자아동 집단은 비교적 안정된 구조를 취하면서 변화했지만 남자 아동의 집단들은 선택과 배척이 동시에 증가하였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차후 연구가 필요하다.

연구가설 II의 결과로 볼 때 사회적지위가 낮은 하위권은 상당히 심각하며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반 전체를 대상으로 한 훈련보다는 개별훈련 내지 배척된 아동만 따로 모아서 훈련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사전, 사후, 지연검사의 결과에서 모두 배척된 11, 12, 13번 아동은 심각하다. Gronlund(1959)는 학급집단내 약 11-22%의 아동이 배척되거나 소외될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연구가설 III에서는 또래상담자로 활동한 아동들의 사회적지위가 하락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배척된 아동과 상호작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학급내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결과 때문으로 예측된다. 학급 내부에 또래상담자들이 활동하는 것과 같은 새로운 변화가 유발될 때 상호선택 아동들은 계속적으로 상호선택을 유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여자아동보다 상대적으로 남자아동들의 무리구조가 크게 변화되었다.

연구가설 IV의 결과로 볼 때 남자아동의 경우 인기와 배척아동은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여자아동의 경우에는 여자집단내에서 인기와 배척을 번갈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아동의 현상을 바람직스럽다고 가정할 경우 남자아동들에게는 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지를 밝혀볼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행렬매트릭스표에서 남자아동은 남자아동을 선택하고 또한 남자아동을 주로 배척하였지만 여자아동은 여자아동을 선택하고 남자아동을 배척하였다. 따라서 남녀 아동간에 선택과 배척의 방향이 다르다. 반은 성별을 중심으로 서로 다른 움직임을 갖고

있었다. 이런 이유로 자연스럽게 남자아동의 배척이 현실적으로 많을 수 밖에 없다. 남자아동에게는 배척이 많고, 여자아동에게는 무시된 아동이 많다는 서양의 연구 결과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여진다.

연구방법의 측면에서 논의해 보면 Coie와 동료들이(1982) 제안한 아동의 5단계 분류체계는 남자아동의 경우 인기아동과 배척아동을 처치 이전과 지연검사에서 거의 동일하게 예측하였다. 따라서 남자아동의 경우에는 매우 높은 신뢰성을 보여주었다. 동일한 검사문항으로 다른 영역에서 서로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이 분류체계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진다. 왜냐하면 다른 결과는 아동의 다양한 상호작용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VI. 결 론

행렬매트릭스를 이용한 아동집단 전체에 대한 구조적 관찰은 현실적으로 교사가 오랫동안 한 학습을 대상으로 관찰한 집단구조에 대한 관찰 내용과 일치한다는 연구자들의 보고는 계속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교사가 동료상담자로 지목한 아동들은 행렬매트릭스상에서 거의 인기아동으로 나타났다. 여기서는 행렬매트릭스를 이용해서 아동집단의 전체 구조를 이해하는 데 주의해야 할 사항과 본 연구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얻은 연구자의 결론을 결론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교사(연구자)가 자료처리의 편리성 때문에 제한선택형 질문지로 행렬매트릭스를 사용할 경우 집단전체 구조의 역동성에서 나타나는 많은 변화를 소홀히 다룰 가능성이 높다. 무제한 선택과 무제한 배척을 허용할 때 학급간 비교 및 개인의 성향을 좀 더 알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무제한 선택과 배척을 허용할 경우에는 가중치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자가 창안한 표적소시오그램과 교우관계도는 아동의 모둠조 활동 및 아동이해에 더 많은 자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본다.

넷째, 일부 연구자들은 아동을 대상으로 배척 질문을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좋지 않다는 평가를 하고 있지만 배척 아동을 정확하게 찾아내서 교육적 지도를 하는 것이 더욱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한다.

다섯 째, 학급집단에 또래상담자가 들어가서 활동을 한 이후에 각 개인 아동들의 사회적지위 변화가 강하게 나타나 본 연구의 훈련모형이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학급집단의 각 개별 아동들은 학급생활 내내 인기, 배척을 번갈아 경험해 보는 것이 이상적인 학급생활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기간 배척된 상태를 유지하는 아동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사회성측정과 관련된 연구의 결과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나타났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여섯 째, 사회성 측정을 통해 아동의 사회적 적응을 이해하고자 할 때에는 인기아동과 배척아동을 제외한 나머지 아동에 대한 해석에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부록] 교우관계도

교우관계도는 한 개인과 집단구성원들간의 선택과 배척관계를 선택과 배척 순위에 따라 한 표에 모은 것이다. 이 교우관계도는 본 연구자가 만든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구성원들이 한 아동을 선택한 것을 먼저 제시하고 다음으로 한 아동이 집단구성원들을 선택한 것을 제시하였다. 선택에 나타난 공통부분은 친구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것을 친구관계 가능성에서 인원 수로 제시하였다. 둘째, 집단구성원들이 한 아동을 싫어하여 배척한 것과 한 아동이 집단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배척한 것을 제시하였다. 배척에서 공통부분은 서로 배척할 가능성이 높은 영역으로 간주하고 이것을 상호배척 가능성에서 인원 수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교우관계도는 집단 모둠활동이나 초기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에게 서로 친한 친구를 같은 자리에 배치하므로써 관계를 쉽게 촉진시킬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번호	성별	이름	1 순위	2 순위	3 순위	4 순위	5 순위	6 순위	7 순위	8 순위	9 순위	10 순위	친구관계 가능성	상호배척 가능성
1	남	김백성	3	9	2	5	11	33	7				3명	
			2	5	40	7	16	15						
			8	10	6								1명	
			6	13	14									
34	여	하리라	33	5	11	32	41	42					2명	
			42	36	38	33								
			4	35	16								없음	
			9	8	44									

주: 번호는 아동의 출석 번호.

참고 문헌

- 강승호, 김명숙, 김정환, 남현우, 허숙 공저(1996). 현대교육평가의 이론과 실제. 서울: 양서원.
- 김영채(1989). 현대통계학. 서울: 박영사.
- 이상희, 노성덕, 이지은(2004). 또래상담. 서울: 학지사.
- 안이환(2006b). 행렬매트릭스를 통한 학급집단의 심리 및 구조관찰. *2006년 한국상담학회 연차대회 자료집*, 100-107.
- 안이환(2006c). 또래집단상담을 통한 학급집단의 역동. 부산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 허창범(1997). 사회 측정법에 관한 연구. *대불대학교논문집*, 121-137.
- 황정규(1984). 학교학습과 평가. 서울: 교육과학사.
- Asher, S. R., & Dodge, K. A. (1986). Identifying children who are rejected by their peers. *Developmental Psychology*, 444-449.
- Brackenbury, B. (1995). *Peer helpers plus: A comprehensive training manual to help student tutors and other facilitators make the grade*. Pembroke Publishers Limited.
- Bukowski, W. M., & Cillessen, A. H. (1998). *Sociometry then and now: Building on six decades of measuring children's experiences with the peer group*.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 Coie, J. D., Dodge, K. A., & Coppotelli, H. (1982). Dimensions and type of social status: A cross-age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557-570.
- Edwards, W., & Newman, J. R. (1982). *Multiattribute evaluation*. London: SAGE Publications.
- Gronlund, N. E. (1959). *Sociometry in the classroom*. New York: Happer & Brothers.
- Kalton, G. (1983). *Introduction to survey sample*. London: SAGE Publications.